"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딸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."

-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영미(가명)님의 이야기 -

25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.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의 무능력과 도박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. 잦은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. 결혼한 지 10년 째 되던 날이었습니다.

갈 곳 없는 모녀는 현재 지하 단칸 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. 강영미님은 오랜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감정기복도 심합니다.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.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또래에 비해 내성적이고 잘 웃지 못합니다.

가정폭력에서 겨우 벗어난 모녀가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강영미님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
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